

LG에너지솔루션 제3기 정기 주주총회

CEO Letter to Shareholders

CEO Message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LG에너지솔루션에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이라는 '더 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R&D와 제조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지정학적 리스크, 물류대란, 금리와 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혹독한 환경이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성장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의 주요 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신뢰로 이뤄 낸 양적·질적 성장

지난해 당사의 배터리 출하량은 견조하게 증가했으며, 신규 전기차 수요 대응과 EV/LEV용 원통형 판매 확대,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북미지역 전력망용 ESS 배터리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모든 제품군에서 출하량이 증가하며 매출 2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최대 실적의 경영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메탈 등 주요 원가 상승분에 대해 평가 인상을 추진한 노력과 함께 생산성 개선 활동이 뒷받침되어 전년 대비 58% 개선된 1.2조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7%로 전년 대비 0.4%p 개선되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IPO에 따른 자본 확충의 효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고, 지난해 3분기에 글로벌 신용등급 S&P BBB+(Positive), Moody's Baa1(Stable)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사업적으로도 북미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GM3기, 스텔란티스, 혼다와의 신규 JV 설립 결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글로벌 유수의 고객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20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단독 및 합작 형태로 전세계 6개 국가에 생산라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전략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230GWh 규모의 JV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글로벌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2022년 말 기준 385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2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ESG경영 선도

배터리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으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도구이자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50년까지 원재료 소싱부터 배터리 생산, 폐배터리 자원 선순환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 전 영역을 아우르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글로벌 쏘사업장에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순환형 Closed Loop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경쟁력 있는 리사이클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배터리의 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로써 인류에게 더욱 깨끗한 환경을 선사하는 기업이라는 사명으로 ESG경영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이 최우선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조직문화 및 HR 제도 혁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도적인 자세와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지위 강화 위한 4가지 중점 추진 과제

올해 경영환경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터리 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환율 변동과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에 더해,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와 같은 정책 기반의 탈세계화가 공급망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한 시장 대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완성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전동화와 정부 정책에 힘입어, 배터리 시장은 올해에도 EV 중심의 수요 성장에 힘입어 약 33% 성장한 890GWh 수준의 시장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IRA정책으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의 배터리 시장 성장률은 60% 중후반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익성 중심 투자 전략 및 고객확보 전략 수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핵심 고객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이어 가기 위해 올 한 해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두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품 경쟁력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프리미엄 성능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보급형에서는 원가 격차를 축소할 것입니다. 배터리 팩과 BMS 측면에서도 기술 역량을 확충해 시스템 단위의 제품 경쟁력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당사는 급격한 생산량 확대에 대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 빅데이터와 AI기법을 활용한 예지보전, 자동화, 지능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산 전개를 위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운영, 생산성, 품질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SCM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국가별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추어 서플라이 체인 전반을 민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역내 메탈 확보와 주요 재료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업스트림 업체에 직접 투자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IRA 등의 정책 대응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안정적인 제품 공급 뿐 아니라 Cost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선행투자과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리튬황, 전고체 배터리 등 다양한 미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업체와의 기술 협력도 확대해 차세대 전지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신규 수익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BaaS(Battery as a Service)나 EaaS(Energy as a Service)의 신사업은 사내 독립기업 운영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세계 최초, 최고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 덕분입니다.

올해도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갖추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QCD(Quality, Cost, Delivery)로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익성 No.1 기업'으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답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 권 영 수

